

일본 영화계 금기, 두 번 깨다

아베 정권 비리 고발한 금기 작품
논란 이겨내고 여우주연상 재평가
후지가 감독 "심은경 연기는 최고"

배우 심은경이 일본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영화 '신문기자'로 한국배우 최초로 일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면서 시선을 모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일본 정부가 9일부터 한국 입국자에 대해 검역소 지정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도록 요청하고 입국 사증(비자)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면서 이번 조치의 배경에 의구심이 쏠리는 상황에 한국배우가 일본영화의 중심에서 울려온 낭보가 의미될 수 있다.

심은경은 6일 제43회 일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한국과 일본에서 발휘한 역량을 다시 평가 받고 있다. 5일 막을 내린 tvN 드라마 '머니게임' 촬영을 일찌감치 마치고 일본에 머물고 있던 그는 이날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호명되자 눈물을 흘리면서 "더 열심히 연기하겠다"고 인사했다.

'신문기자'는 정권 실세가 연루된 비리를 추적하고 가짜뉴스와 '댓글 공작'을 고발하는 신문기자의 이야기다. 아베 총리가 2017년 연루된 사학 스캔들이 모티프다. 지난해 6월 일본 개봉 당시 현지 문화예술계의 '반(反) 아베' 기류와 맞물려 흥행에도 성공했다. 계속되는 관심을 반영하듯 이번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작품상과 마츠자카 토리의 남우주연상까지 차지했다. 영화매체 버라이어티는 "정치적 논쟁을 극화하는 것에 대한 일본영화계의 금기를 깨뜨린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심은경의 수상 소식은 일본 정부의 갑작스런 한국 입국자 제한 조치 직후 나와 시선을 모은다. 일본 정부가 5일 관련 조치를 발표하자 한국 정부가 이에 맞서면서 양국이 새로운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다. 심은경은 '신문기자'가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공개될 때에도 한일 갈등 국면과 맞물려 주목받았다. 당시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본 측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인 'NO 재팬' 캠페인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시기였다. 이에 더해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 연예인 가운데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작품에 과감하게 나서는 배우가 드문 상황에서 그의 활약이 한국 관객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심은경은 강한 의지로 일본 활동을 꿈꿔왔다.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닌 그는 평소 일본문화에 호기심을 갖고 몇 달 동안 현지에서 혼자 머물며 일본어를 익혔다. 2017년 현지 매니지먼트사 유마니테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시작했다. '신문기자' 외에 주연작 '블루아워'로 이달 20일 개막하는 제34회 다카사키영화제 여우주연상 주인공으로도 지명됐다.

일본영화계의 기대도 얻고 있다. '신문기자'의 후지이 미치히토 감독은 "한국과 달리 한 달간 빠르게 영화를 찍는 환경에 심은경이 완벽히 적응해 높은 연어장벽까지 넘었다"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아이디어를 내고 연기로 보여준다. 일본에서 그런 배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fi1024@donga.com

◀ 연기자 심은경이 6일 일본 도쿄 신 다카나와 프린스호텔에서 열린 제4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뒤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했다. 사진캡처 | 일본 아카데미 공식 트위터

연예

9

2020년 3월 9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해시태그 컷



"차별 NO" 이지연 마스크 투쟁

가수 출신 이지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동양인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인종차별 움직임에 항의했다. 이지연은 최근 자신의 SNS에 영어로 "내가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발로 차지 말라"며 "동양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해서 아프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나는 알레르기가 있다. 코로나19가 아니다"는 문장을 영어로 적은 마스크를 쓴 모습도 함께 공개했다. 이지연은 1987년 데뷔해 '바람아 멈추어다오' 등 노래로 인기를 모았다. 이후 요리사로 변신해 현재 미국에서 거주 중이다.

#스포츠동아 #이지연 #코로나19 #인종차별 그만

편집 | 김태건 기자 bong82@donga.com

日 공연 줄줄이 취소

슈주·스트레이키즈 등 한류 올스타들
"3000억 매출 규모에 큰 손실 입힐듯"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한국인에 대한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케이팝 공연 등 현지 한류가 멈춰 섰다. 한류스타들의 주요 무대였던 일본시장이 막히면서 경제적 손실을 넘어 향후 상황도 전혀 예측할 수 없어 대책 마련조차 무의미해졌다.

그중 슈퍼주니어는 25일과 26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서 펼칠 예정이었던 단독콘서트 '슈퍼쇼:8인 피니트 타임'을 보류했다. 슈퍼주니어는 6일 일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입국자 억제책

으로 인해 슈퍼주니어 공연은 보류하기로 했다"면서 "대체 공연의 유무, 환불 등 상세 내용은 다시 알려겠다"고 설명했다.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키즈도 21일과 22일 개최하려던 월드투어 오사가 공연을 취소했다. 8일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이번 입국 제한 조치에 따라 공연을 열지 않기로 했다. 추후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확정할 예정이다.

4월 무대도 미뤄졌다. CJ ENM은 4월3~5일 도쿄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케이콘 저팬'을 연기했다. "관객과 아티스트, 스태프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결정했다고 CJ ENM은 설명했다.

케이팝 가수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 입국자에 대해 사실상 격리에 해당하는 '2주간 대기 요청'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기간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또 일본 측의 이번 조치로 항공편 운항 역시 제한적인 수밖에 없어 이동이

원활해지지 못하게 됐다. 한 가요 관계자는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감염병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정서상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지 공연은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에 있다. 그룹 트와이스(4월)와 세븐틴(5월), 방탄소년단(6월) 등이 현지 대규모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일본 정부가 이를 연장하는 경우 공연 개최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또 다른 가요 관계자는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공연이 취소되는 등 시장이 크게 위축된 데다 핵심 한류시장까지 막히면서 3000억원에 육박하는 현지 케이팝 매출 규모에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면서 "예측불허의 상황에 대책을 마련할 수도 없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아는 사람 부탁으로 마지못해 가입한 보험들
보장내용도 잘 모르고,
보험료도 부담스러우십니까?

비교진단으로 간편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내 인생이 걸린 보험, 모든 보험을 비교해보고 가장 유리한 것으로 하셔야죠?
선진국 방식의 획기적인 보험 '비교진단' 서비스 - 에프엠에셋.
대한민국에 등록된 수많은 보험사들의 모든 보험을 비교진단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은 막아주고, 꼭 필요한 보장은 꼭꼭 채워줍니다.



www.infodb.co.kr

보험전문가 에프엠에셋의 맞춤형 해결법!

- 노후대책을 위해 나에게 딱 맞는 '연금보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종신보험'은 어떻게 드는 게 좋는지?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한 꼭 필요한 '간병보험'은 어떤 게 유리한지?
- 보험을 통한 '절세 노하우'까지?

보험은 FM대로! 에프엠에셋의 비교진단 설계!

- 동일한 보장에 보험료는 저렴한 상품을 찾아주고!
- 중복가입으로 줄줄 낭비되는 보험료는 막아주고!
-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암보험을 찾아주고!
- 나에게 꼭 맞는 노후보장 대책도 세워주는 비교진단 설계!

이미 가입한 보험도,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도 보험전문가가 '비교진단'해 드립니다.



FM에셋

24시간 무료상담

080-235-0119